

司教研究

제53집(2024/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발 간 사

‘희망의 순례’라는 주제로 정기 회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어려운 시기와 세상 곳곳에서 벌어진 국제적 분쟁과 기후 변화, 다양한 형태의 불의로 상처 입고 있는 세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외교적 혼란으로 힘겨운 국내 상황은 참으로 희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세상에 희망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자 노력한 교회의 모습을 보편 교회와 주교회의, 교구, 본당의 차원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임재중 상임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와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개최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와 시기적으로 상당 기간 겹치면서, 교황에게 팬데믹은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세계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에 폐막한 세계주교시노드의 「최종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리를 밝혀 줍니다. 상호 경청, 대화, 공동체적 식별, 성령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현하는 동의 형성, 그리고 분화된 공동 책임성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참여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여기서 눈에 띈 구절은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깊이가 부족하면 시노달리타스는 그저 조직 운용의 방편으로 전락하기 쉽다”(「최종 문서」, 43~44항)입니다. 교회의 각 구성원과 지역 공동체의 영적 깊이가 기반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참여 기구의 기본 원리로서 「최종 문서」가 제안하는 ‘교회적 식별, 결정 과정,

투명성/책임감 있는 설명/평가'에 대한 고찰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인 변승식 신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과정과 영향, 본당의 신자들이 겪은 체험들, 그리고 다양한 사목적인 시도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이어서 팬데믹 이전과 이후, 의정부교구의 사목 현실을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는 통계적 지표를 통해 사목적인 노력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떤 과제들이 제기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의정부교구의 지표 중에서 2024년 신자 수와 미사 참석자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팬데믹 이후에 행불자의 꾸준한 증가를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기술합니다. 의정부교구의 사목적 노력인 '시노달리타스' 구현을 위한 경청모임 실시, 청년·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성가캠프와 청년성서모임의 사목적 효과를 말하고, 대신에 과제로는 30-40대 신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시노달리타스 정신에 부합한 교구와 본당의 사목에 있어 소통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평신도와 협력하여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서울대교구 화곡본동성당 주임이며 소공동체 전문가인 정월기 신부는 팬데믹 이후 본당 차원에서 공동체성과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목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본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의 기초는 “교회의 선교와 복음화 활동 주체는 언제나 하느님 백성 전체다”(「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27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사목회와 구역과 반 소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논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왕직, 사제직, 예언직의 차원을 본당에서 찾아가는 사목(사제관 개방, 전 신자 면담, 가정 방문, 구역별 피정), 주님을 만나도록 이

끄는 전례(구역과 반의 소공동체 미사, 쉬는 신자를 위한 기도, 묵주기도), 말씀으로 다가오는 주님 말씀 맛 들이기와 선교(말씀여행과 묵상, 거룩한 독서)로 구현하는 시도는 타 본당들에게도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논단으로 본 대학교의 신학대학 부총장인 전영준 신부가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의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로서의 관점에 관한 연구를 게재했습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대립하던 17세기 초의 유럽의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 ‘개신교의 로마’라고 불린 제네바 교구장 주교로서 사목한 성인을 경건한 인문주의자로 평가한 사람은 영국 출신 가톨릭 사학자 필립 휴즈입니다. 휴즈는 성인이 인문주의의 좋은 점을 교회 정신으로 승화해 경건한 그리스도교 인문주의를 완성하면서 자신의 사목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가 팽배한 시대적 분위기에서의 성인의 성장기와 종교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났던 제네바라는 지역과 복잡한 역사적 과정에서 피어난 성인의 수도회 설립과 사목적 사랑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린 글은 본 신학대학의 전례학 교수이며 사목연구소 소장인 본인의 번역문입니다. ‘사제직으로 부름 받은 평신도’는 교황청립 성 안셀모 대학의 교수인 평신도 여성 신학자 첷티나 밀리텔로(Cettina Militello)가 1987년에 『전례에서의 평신도』(*I laici nella liturgia*)라는 책에 게재한 글입니다. 좀 오래된 글이지만, 시노달리타스 주제에서 기본인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을 전례적 차원에서 고찰했다는 독특함으로 인해 번역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인해 세례와 견진 이후에 ‘일반 사제직’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신학적 지위가 전례문에도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한계와 부족함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주일 미사 참여율이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 하

지만,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과 30-40대 신자들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더하여 성소자 급감(성직과 수도 성소 지원자)은 유럽과 북미 교회의 현재를 따라가는 듯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그것을 통해 성장보다는 성숙한 한국천주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시노달리타스’라는 교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계획, 실행에 각 교구와 본당 공동체 전체가 협력한다면 더 나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 12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
윤종식 신부

司牧研究 제53집 2024 겨울

차례

발간사/ 3	윤종식
[특집] 코로나19 이후의 사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한국 교회의 사목 구조/ 9	엄재중
코로나19 이후 의정부교구 사목/ 40	변승식
코로나19 이후 화곡본동 본당에서의 사목/ 69	정월기
[논단]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의 사목적 사랑/ 93	전영준
[번역]	
사제직으로 부름 받은 평신도/ 124	첸티나 밀리텔로, 윤종식 옮김
[부록] / 157	
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159	
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165	
I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168	
I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170	
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171	
司牧研究 총목차(1994-2024 여름) 173	

Contents

Editorial Preface/ 3

Rev. Yun, Jongsik, S.L.D.

[Special Issue] Pastoral Care after COVID-19

Pastoral Structures for Synodality in the Church in Korea in a Post COVID-19 Era / 9

Eom Jaegung, Th.M.

Pastoral Care of Uijeongbu Diocese after COVID-19 / 40

Rev. Byeon Seung-sik

Pastoral Approach of HwagokBondong Parish after COVID-19 / 69

Rev. Chung, Wollki, D.Min

[Articles]

Apostolate Charity of St. Francis de Sales, the Christian Humanist / 93

Rev. Jeon, Yeongjoon. S.T.D.

[Translation]

The Lay Christian Called to the Priesthood / 124

Cettina Militello. S.T.D.

tr. by Rev. Yun, Jongsik, S.L.D.

[Appendixes] / 157